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사례집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NTENTS

00 — INTRO

04

01 — SOC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9
- 한국철도공사 13
- 한국토지주택공사 17

02 — 에너지

- 한국가스공사 23
- 한국수자원공사 27
- 한국중부발전 31

03 — 산업진흥·연구교육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7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41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5

04 — 지역개발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51
- 인천도시공사 55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9

05 — 농림수산업환경

- 한국농어촌공사 65
- 한국임업진흥원 69

06 — 기타(보건의료·정책금융·외교법무·문화예술)

- 국립암센터 75
- 신용보증기금 79
- 한국국제협력단 8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7

07 — 부록1

90

부록2

92

- ◆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 위기...공공기관의 가치 기반 활동 필요성 커져
- ◆ 세계 흐름, 경제 효율성 중심 성장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 필요

사회 양극화·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로 인해 이윤과 효율성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을 포함합니다.

13개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 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 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 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 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출처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8.3)

국제사회도 경제적 효율성 위주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U,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였고, 정책 추진 기반 마련과 주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 원리로 삼고, 업무 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선도적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운영 원리와 사업 내용이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는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원리는 협력과 연대이며, 활동기반은 지역사회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사례집’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사례집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¹⁾에 참여한 78개 기관의 사례 중에서 확산 가능성이 높은 18개 기관의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협력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기관들의 2020년 사회적 가치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코로나19 대응 사례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현황도 폭넓게 담았습니다.

이 사례집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선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인선

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2019.12.11.(수), 고용노동부 주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사례집

CHAPTER

01

SOC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9
• 한국철도공사	13
• 한국토지주택공사	17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의 가치 창출로
성장과 조화 이뤄가는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OC #공기업
#상생협력 #지역사회 #지역경제
#SDG6 #SDG12



제주의 식재료로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사회적기업 '섬이다'에서 운영하는 일도일동의 '관덕정 분식'. JDC가 지원한 대표적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사진 제공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의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도를 물류와 비즈니스 거점인 국제 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02년 5월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관광·교육·의료·첨단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펼쳐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사회를 함께 성장시켜왔습니다.

JDC는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2월 이사장 산하에 ‘사회적 가치추진실’을 신설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했습니다. 도민의 요구에 맞는 5가지 핵심 분야인 △맞춤형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복지나눔 △지역상생 △환경 및 문화가치 증진을 바탕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사회적경제 지원 종합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의 착한여행 지원 사업



임직원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모습

- 주요 내용 : JDC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달 솔루션 제공
- 시행 기간 : 2017년 ~
- 사업 범위 : 제주
- 주요 실적 및 성과
 - 사회적경제기업 단계별 육성 지원 및 컨설팅, 전문 분야 멘토링(22개사 참여)
 -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조직 금융(10개사, 7억원) 및 72명 신규 고용 창출('20년 한해 실적)
 - JDC 사업 부지 마을 특색을 반영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및 협력 파트너 양성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지역상생·가치 증대 위한 단계별 계획 펼친다”

인터뷰 김경훈 • JDC 사회가치추진실장



❶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02년 JDC에 입사해 올해 19년 차로, 올해 사회가치추진실로 오면서 사회공헌 사업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기업지원 등 사회적 책임 실현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❷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의 내용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JDC에서 추구하는 사회 가치는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자유도시 조성’에서 시작합니다. 제주 경제 성장을 이끌어 도민 삶의 질을 높여 보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은 지역 상생과 가치증대를 목표로 ‘지역 기반, 미래 분야, 글로벌 영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 가치실현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현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역량 강화’가 목표입니다. △1단계 사회적경제 육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공사업의 전략적 파트너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2단계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추진 △3단계 사회적경제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으로 자립 기반 강화 등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❸ 주요 성과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에 현재 2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었는데요. 사회적기업 ‘아일랜드 스토리’와는 홀몸노인 인공지능(AI) 지원사업,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과는 제주형 DMO(지역관광추진조직)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금융지원’과 ‘경영지원’으로 나뉩니다. 기업당 3천만~1억 원의 무이자 융자를 최장 3년까지 시행합니다. 올해 사회적금융을 통해 10개사에 총 7억 원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7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또, 경영진단 및 컨설팅, 전문 분야(법률·특허·세무) 멘토링 등도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제주국제공항 JDC 지정면세점 앞 2층 대합실에서 팝업스토어를 통한 제품 홍보·판매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특히 힘쓰고 있습니다.

❹ JDC에서 추진한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과 올해 집중한 사회적 가치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제주의 특성과 매력을 드러내는 ‘JDC 마을공동체 사업’은 매년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 마을의 농·특산물 판매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서광서리의 ‘별난가게’1호점이 개점했습니다. 이후 평대리 마을의 전설을 들려주는 공간을 카페로 승화한 ‘당근과 껌알’, 드론을 활용한 제주 지도 만들기를 구상 중인 ‘제주날다드론’등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4개 마을을 지원했고, 이 중 27개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0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특히 강화했습니다.

❺ 코로나19 여파로 JDC가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사업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with 코로나’시대에 맞는 사회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 상황을 2개월간 유예하고, 코로나 극복 경영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고(74개사, 5300만 원) 첨단강소기업에는 지원금(5개사, 2억 5천만 원)을 선지급하고,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진흥자금 50억 원을 출연해 화훼·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사회 가치 구현 활동을 펼쳤습니다.

❻ 향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JDC는 ‘사회적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국제 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증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한국 철도공사



철도산업 자원으로
가치 사업 발굴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SOC #공기업

#사회통합 #상생협력 #일자리

#SDG8 #SDG10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9월 24일 대전 중구 문창시장에서 대전시를 비롯한 7개 기관과 함께 추석맞이 물품세트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사진 제공 : 한국철도공사(KORAIL)

120년 역사를 지닌 한국철도공사.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라는 미션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핵심은 ‘철도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사회가치처는 2018년 혁신전략처로 시작해 작년에 ‘사회가치처’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공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열린혁신 업무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에 필요한 기능을 종합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전략경영체계와 연계한 ‘중장기 사회적 가치 실현 마스터플랜’을 수립, 전사적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단’(가칭 ‘on-job’)을 운영합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자립 생태계 육성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코레일 따라 방방곡곡 가치를 나누고 전파합니다’



철도역 공간을 활용한 미혼모 마중물 사업장 창업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 주요 내용 : 철도 인프라를 이용해 자활기업 지원 및 공정여행 플랫폼 제공
- 시행 기간 : 2018년 1월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과 철도 이용객을 연결
 - (공정여행 플랫폼) 안동·경주·포항·봉화 등 관광객 약 800여 명, 2020년 전국 확산 추진
 - (자산 활용 기회 제공) 서울역 등 전국 30개소(약 15백여 평)에 창업 및 사무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 (75% 인하된 임대 요율)해 민간부문 판로 개척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우수상 수상(2019)

“사회가치채 중심 중장기 가치 실현 마스터플랜 만들었다”

인터뷰 유병은 • 한국철도공사 사회가치채 부장



❶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92년에 입사해 안전·재무·IT부서 등에서 약 28년 근무했습니다. 사회가치 업무를 맡은 지는 작년 6월부터 약 1년 3개월 정도입니다. 사회가치 업무는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내 문제해결 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가치채는 정부나 시장이 하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❷ 한국철도공사는 공정여행 플랫폼을 구축해 ‘소셜 문화 관광’을 선도합니다.

코로나19로 신진 기업 발굴이 힘들었을 듯합니다.

그런 이유로 관광 사업보다는 다른 사회적 가치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와 대전광역자활센터에서 함께 ‘비대면 사업온라인 장터’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충남본부 직원 약 2,300명에게 자활생산을 알리고 착한 소비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활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자활생산물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과 8월에는 국가적 혈액 부족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본사와 지역본부는 물론이고 계열사까지 동참하는 전사적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헌혈 인원의 제한을 뒀는데도 임직원 약 1,600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전년보다 2배 늘어난 숫자입니다.

❸ 한국철도공사 자원을 활용해 진행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나, 이룬 성과 등을 소개해주세요.

지난 6월 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물품 판매전에 참여했습니다. 손병석 사장의 응원메시지 전달과 함께 4억 원 상당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경제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 공간에 맞는 대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사회적기업 육성 및 판로를 지원합니다. 자활기업의 출장 세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역 주차장에 주차 및 세차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역사에 출장 세차 관련 홍보물을 게시, 철도 이용고객에게 주차비와 세차비를 할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갑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으로 3개소에서 진행하다가 2019년 전국 29개소로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6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미혼모들의 생계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역사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공간도 제공합니다. ‘내일하우스’는 해피트레인의 명성을 이을 2번째 대표 사업입니다. 철도연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도 중요한 문제라 주택 개량사업도 합니다. 철도연변에 대한 배려는 한국철도의 의무라고 판단해 시작했습니다. 새집을 지어 주는 것까지는 아니고, 전기, 건축 등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을 모아 도배, 보일러 교체, 등 가구 교환, 청소 등 새집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이 불가능해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형식으로 내일하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며 청년 창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합니다. 가좌역에 소셜벤처 육성공간을 두고 있으며, 경산역 키친랩을 통해 청년들에게 외식업에 대한 실전 경험의 장을 제공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지원하는 등 공간 맞춤형 특화사업 개발로 사회적 가치 구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❹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철도산업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튼튼한 가치사슬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활용해 판에 박힌 사회공헌의 틀을 넘어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 행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상생노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 주택공사



입주민-사회적기업과
상생모델 구축하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SOC #공기업

#상생협력 #일자리 #지역경제

#SDG8 #SDG11



LH는 지난해 12월 ‘제1회 사회적 가치 어워드’를 열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총 8개 단체 및 부서에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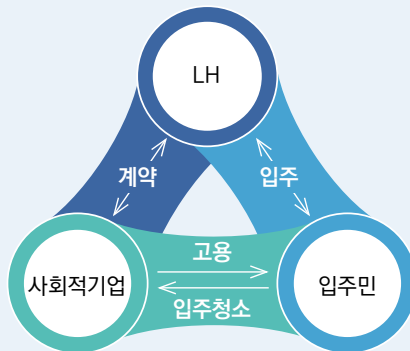
사진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는 그동안 주거복지, 임대주택 건설·공급,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해외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며 국가경제 발전을 실천해왔습니다. 오늘날 저출산·고령화, 소득 불평등, 일자리 위기 등 사회문제가 다양화·복잡화하면서 이를 해결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H가 시행한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입주민 참여형 입주 청소’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전국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입주 청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청소에 투입되는 인력을 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채용해 ‘입주민-사회적기업-LH’ 3자가 상생하는 모델로 구축했습니다. 향후 단지 유형과 수혜 세대 범위 등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의 참여 범위를 넓혀 지속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참여형 입주 청소’



LH-사회적기업-입주민 협업 구조도

- 주요 내용 : 임대주택 입주청소를 사회적기업, 입주민과 협업해 추진
- 시행 기간 : 2018년 4월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영구·매입 임대주택 150개 단지, 24만 3천 호 대상
 - 36개로 세분화해 권역당 1개 사회적기업과 계약
 - 사회적기업 48개 육성 및 신규 일자리 358개 창출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대상 수상(2019)

“LH 수행 업무 거의가 사회가치 추구… 새롭게, 맞춤형으로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유재호 · LH 미래혁신실 사회적가치추진단장



❶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18년간 LH에서 근무하면서 신도시, 주거복지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사회적가치추진단은 2018년 1월 설립됐고, 저는 올해 초부터 단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의 업무가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LH가 수행하는 업무 대부분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니 그간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❷ LH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핵심과 그동안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요.

LH 설립 목적은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입니다. 주거복지·도시재생·균형발전 등 고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거안정·균형발전·일자리·상생협력·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LH는 매년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 414개 전 사규를 대상으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또, 사회성과 측정 표준모델을 마련해 주요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측정-평가-환류’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가 확산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❸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참여형 입주 청소’사업의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사회적기업에는 안정적 일감 확보, 사업 영역 및 능력 확장, 저소득층 채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회를 제공했고, 입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며 기술 습득 및 직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 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입주민과 사회적기업에 자립력 경쟁력을 키워가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지 유형, 수혜 세대 범위 등을 확대해 올해 사회적기업 40개, 일자리 300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❹ 3자 모델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LH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권역별 전문 보수업체 등과 비교해 전문성이 떨어져 품질 저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대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소 전문 직업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여 입주민들 역시 청소 기술이나 안전 교육을 받고, 스스로 직업 활동의 기틀을 마련해 자립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❺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LH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경기 활성화와 입주민·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즉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종합 대응 방안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비 2천억 원을 추가 집행했고, 공사·용역 선금 지급도 6237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마스크 1억5천만 원, 임대주택 방역 및 소독제 3억 2천만 원 등 건설·주택관리 업체도 집중 지원했습니다. 임대상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21억 2천만 원을 감면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는 임대료 7억 2천만 원을 추가 할인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세대에 생필품 5천만 원, 임대 홀몸 어르신에게 생필품 1억 6천만 원 어치를 제공하고, 지역 화훼농가 4억 원, 지역 상권 4억 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❻ 2020년 사회적가치추진단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올해는 ‘고유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추진계획을 고도화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임직원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민간기관과 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LH-서울시 노원구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료사회이 커뮤니티케어형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1,214개 조직을 육성해 ‘공정경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LH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는 LH의 주요 사업을 통해 ‘더 많이’, ‘더 빨리’,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협력 연대해 ‘새롭게’, ‘맞춤형으로’,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더 나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CHAPTER 02

에너지

• 한국가스공사	23
• 한국수자원공사	27
• 한국중부발전	31



한국 가스공사



‘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몰’ 운영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공기업
#보건복지 #상생협력 #지역경제
#SDG9 #SDG12



한국가스공사는 본사가 위치한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전사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협력사 임직원 자녀 대상 장학금 수여식 때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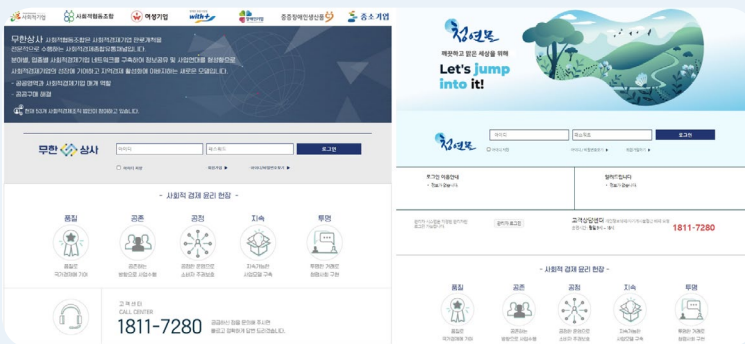
사진 제공 : 한국가스공사(KOGAS)

2014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가스공사 (이하 KOGAS)는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지난 37년간 전국 곳곳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배관망을 건설하고, 해외 각국에서 LNG를 수입해 제공해왔습니다. 2019년 말 기준, 210개 시군·1860만 6천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KOGAS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사회적경제 지원 종합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최초 사회적경제 온라인 전용 상점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사회적 가치 우선구매 지침’을 제정해 구매액이 2015년 12억 원에서 2019년 120억 원으로 10배 증가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사회적경제 지원 종합 체계 구축’



한국가스공사에서 구축한 사회적경제 온라인몰과 복지몰

-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전용 온라인 상점 운영
- 시행 기간 : 2018년 3월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공기업 최초 사회적경제 온라인 전용 상점 및 복지몰 구축
 - 사육 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업무공간 지원
 - ‘사회적 가치 우선구매 지침’ 최초 제정...12억 원(2015) → 120억 원(2019) → 130억 원 돌파 예상(2020)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우수상 수상(2019)

“일회적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원으로 확장합니다”

인터뷰 김경수 · 한국가스공사 총무부 과장



❶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0년 입사 이후 해외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맡고, 재무보고·회계·세무·예산·자금·은행업무·국제입찰·전산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KOGAS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업무는 크게 3개 부서(총무부·사회공헌부·상생기획부)에서 진행되는데, 저는 우선구매를 담당하는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생기획부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개별 부서가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기획·조정 중입니다.

❷ KOGAS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본격화한 계기와 고민은 무엇인가요?

KOGAS는 소수 담당자가 맡아 다소 수동적으로 진행하던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제를 보편적·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후손에게 물려줘도 될 만한 내용으로 방향성을 전환했습니다.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몰·복지몰 등 플랫폼을 만들고, 사옥 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개설해 업무 공간을 지원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통합 발주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줬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다른 기관과 차별점이라 생각합니다.

❸ ‘사회적경제 지원 종합 체계 구축’ 사업 의미와 추진 성과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경제 온라인몰은 2018년 6월에 착수해 같은 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KOGAS만 사용했지만, 현재는 약 50여 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8년 3억 원 정도였으나 2019년 말 기준 60여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몰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2020년 10월 말 기준, 약 100여 개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지침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2015년 12억 원에서 2019년 120억 원으로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 약 80억 원 정도의 성과를 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및 사업 추진의 차질 등을 고려해도 구매액이 약 1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❹ KOGAS 본사는 대구광역시에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지난 2~3월 확진자 발생 이후, 소독제와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죠. 가격이 평소 5배 이상 폭등했으며, 이마저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KOGAS는 그동안 구축해온 사회적경제 플랫폼과 공급망을 활용해 방역물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고, 이를 대구시에 기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썼습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노바텍·BP·페트로나스·오만LNG 등 해외 파트너사에 한국의 품질 좋은 마스크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체 사옥 방역을 진행했으며 긴급 생필품, 자동 방역기, 열화상 카메라 등을 긴급 조달해 1,400명이 근무하는 KOGAS 본사에서는 다행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❺ KOGAS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사업과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지역 생산물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카카오톡에서 ‘한국가스공사 복지몰 챗봇’을 검색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웹으로만 가능했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모바일에서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복지몰을 지역의 행정·공공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로 지역 사회적기업인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복지몰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행정기관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형·무형의 자원을 다각적으로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유기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안심하고 이용하는
물 복지 실현하는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 #공기업
#인권 #상생협력 #환경
#SDG6 #SDG7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수질오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멀리 아프리카에만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국내 가구에도 제대로 된 수도설비가 없는 현실. 한국수자원공사 (이하 K-water)는 물 관련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공사는 과학적 물관리와 수돗물 생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워터시티(SWC)등 물순환 사업으로 높은 품질의 물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2018년에는 사회가치창출부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국민소통 및 협업기반 구축·운영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급수 취약지역 물 인프라 투자 및 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물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

-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점프업) 사업
- 시행 기간 : 2018년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19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 지원 등 토털 솔루션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국내외 진출 지원
 - 물 종합서비스를 통한 차별 없는 물 복지 실현

“안전한 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가치 실현”

인터뷰 오수진 · 한국수자원공사 사회가치창출부장



2018년 사회가치창출부가 신설됐습니다.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K-water의 노력은 어떻게 추진돼 왔나요.

한국수자원공사 (이하 K-water)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 공급 책임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물 복지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와 수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부터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수도검침 서비스’를 개발, 확산, 산소와 열을 이용한 친환경 세척기술을 개발해 기존 수질검사 서비스를 옥내배관 진단 및 세척서비스까지, 수도물 토탈게어 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물 관련 전체 서비스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water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점프업)’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 실행기업을 선정해 K-water와 협업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9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 지원과 경영컨설팅, 사업화 코칭, 멘토링 프로그램, 테스트베드 제공,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모전을 통한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회적경제기업 점프업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올해 신규 지원 6개사, 후속 지원 2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기업은 연말까지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상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물 분야 소셜벤처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에 물산업 협력 스타트업 지원제도를 도입해 물·환경·에너지·스마트시티 분야 소셜벤처 20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K-water가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대전광역시·민간 창업지원 전문기관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을 넓혔습니다. 2018년 K-water 협력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 ‘팀알파브레인(TAB:실시간 살균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맞춤형 정수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에는 ‘내외부 역량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사업을 진행해 사회적기업 8곳, 소셜벤처 10곳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원한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은 전년 대비 매출 40%, 일자리 27%가 증가했습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해외 물 부족 국가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K-water는 언제 어디서나 외부 에너지원 없이 사람의 체온을 이용해 총대장균군을 검사하고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기술 ‘사람체온을 이용한 총대장균군 검출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물 부족 국가에서 오염된 물을 마셔 발생하는 수인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주)파이쿼트에 기술 이전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지원했습니다. 전기 사용이 어려운 저개발국가 진출을 계획했는데 코로나19로 당장은 어렵고요. 향후 상황이 나아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과 협력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문화예술, 관광, 교육 분야의 기업이 더욱 어려운데 올해 점프업 사업에 해당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향후 K-water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업무 전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댐·수도·정수장 등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물산업 중소·스타트업 육성 및 공정거래모델 정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부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신중년 일자리까지...
다양한 가치 창출하는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에너지 #공기업
#상생협력 #일자리 #지역경제
#SDG4 #SDG8



2019년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소셜 프로모터’ 성과공유회 현장 모습이다.

사진 제공 : 한국중부발전(KOMIPO)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은 높은 수준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력발전(석탄·LNG·중유)과 풍력, 태양광, SRF, 연료전지 발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합니다. 특히 깨끗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환경설비를 교체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부발전은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신중년 재취업 지원까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 종합 지원’



지난해 개최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희망일자리 나눔터 개소식

-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종합 지원 사업
- 시행 기간 : 2018년 ~
- 사업 범위 : 충남
- 주요 실적 및 성과
 - 15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 69명 일자리 취업, 사회적경제 인재 57명 양성
 - 사회적경제기업 6억 5천만 원 매출 ↑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액 70억 원(15% ↑)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등 종합 지원

인터뷰 **천정갑** · 한국중부발전 상생협력부장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지난해 8월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4월 2020년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억 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양성·창업(사업화) 지원·판로 확대·종사자 복지 향상 등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확대를 목표로 전년도 실적인 61억 원보다 15% 증가한 70억 원을 구매해 목표(65억 원)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가 15개팀(1팀당 3인 이상)을 모집해 총 6회에 걸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심화 교육을 진행했고, 5개팀을 선발해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민간퇴직자 27명을 '민간영업지원단'으로 구성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증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재취업 프로그램도 눈길을 끄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등과 협업체 현장 경험이 풍부한 45세 이상 퇴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특화 커리어 전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3개월간 직장체험을 지원해 재취업까지 연결하고 있고요.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근로환경 개선비를 제공하고, 참여 퇴직 인력에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재정과 환경이 열악해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입장에서 좋은 인재를 활용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니 고마워하는 반응입니다. 은퇴인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취업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회사에 기여하겠다는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회적 가치 사업 중 '지역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사업도 소개해주세요.

중부발전 본사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습니다. 보령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꿈을 펼쳐 보령'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제맥주 창업 등 3개 청년 기업 창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영어학습 지원 모바일 게임 앱 개발 ▲친환경 방식의 신발 케어숍 운영 ▲편의점 레시피 정보검색 플랫폼 개발 등 3개 아이디어를 선정해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서 ▲ICT 기술을 활용한 로컬푸드 판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천연제품 개발 ▲업사이클링 주얼리 제작판매 등 6개 창업팀을 선발해 총 1억6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서울·제주·마산 등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업체 취·창업 상담 및 일자리 매칭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모의면접, VR면접 등 비대면 형태로 취업박람회를 시행해 참여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중부발전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나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중국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수용시설이 위치한 아산과 진천지역에 2천만 원을 기부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제공했습니다. 3월에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리 대출 지원을 통해 97개 업체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5억 원을 출연해 스마트팜 조성, 농산물 착유공장, 바자락 체험장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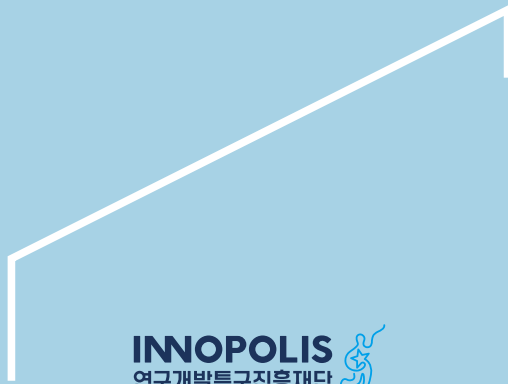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중부발전의 계획과 포부가 궁금합니다.

사회적 가치 흐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자부심 있는 일입니다. 20여 년간 중부발전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 더 심도 있고 유익한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CHAPTER 03

산업진흥·연구교육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7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41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5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사회적경제기업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교육 #준정부기관
#상생협력 #일자리 #참여
#SDG9 #SDG12



지난 2019년 11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혁신센터 및 12개 임팩트투자기관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제공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INNOPOLIS)

국내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이후 특별법에 근거해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고, 각 특구는 첨단기술과 비즈니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혁신 클러스터로 나아갑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은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본연의 임무는 혁신주도형 발전(Innovation-Driven) 전략을 통한 세계 일류국가를 향한 역동적 한국(Dynamic Korea)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생산과 연구기능을 접목한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사회적경제 지원 플랫폼 구축’



크라우드펀딩 데모데이



소셜벤처 데모데이

- 주요 내용 :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플랫폼 구축
- 시행 기간 : 2019년 3월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기술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다부처 연계 크라우드 펀딩 지원 등 임팩트 투자 및 마케팅 지원(21개사, 18억 원 규모 투자 유치)
 - 유망 기술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전문 컨설팅 지원
 - 사회문제해결형 사업화 과제 지원(약 17억 5천만 원)
 - 지역 기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등

'기술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기준 수립...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소기업' 설립 예정

인터뷰 유진혁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회가치평가팀장



❶ 특구진흥재단은 사회적가치지원실을 따로 두고 사회가치평가팀, 사업기획팀, 데이터혁신팀등 3개 팀으로 분류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세분화해서 추진하는 듯합니다.

특구진흥재단의 활동은 본연의 임무 속에 '선순환 구조', '지속가능한 경영'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구기술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위해 기술혁신 플랫폼 사업인 '수요자 중심의 기술 찾기 플랫폼', 사회혁신 플랫폼 사업인 '리빙랩 액셀러레이팅 플랫폼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술사업화 플랫폼 고도화와 혁신성장 생태계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자-시민사회-사회적경제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죠. 사회문제 발굴에서 해결까지 "기획-실천-실험-과정관리"의 통합적 실천으로 기술혁신, 기업혁신, 사회혁신의 진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❷ '기술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재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서 설명해 주세요.

특구진흥재단은 작년에 '기술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했습니다.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되, 기술기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구법상의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또,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의 본 계정에서 3,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 후 등록된 실용신안권, SW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최근 2년 평균 5% 이상인 기업 등이 기술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 ㈜알지티, HME스퀘어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업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기업생태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❸ 성과는 어떤가요.

기관 간 연계가 미흡했는데, 공공기관 최초로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다부처 연계형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21개사, 18억 원(증권·리워드 포함)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형 기업임에도 기존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에 진입하기 어려웠는데,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공공 기술연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임팩트 투자기관(12개, 8천억 원 운용)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후 7개사, 37억 8천만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경제적 자립 문제 해결, 범죄 및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 지능형 CCTV 카메라와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관련 기업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❹ 향후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소기업'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소셜벤처 '미들맨코리아'의 기술수요(폐놀수지 제거 및 마이크로파 조사를 사용하는 강화 목재의 가공 방법)를 발굴하고 충남대기술지주회사에서 현물투자를 통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 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리맨'의 기술수요(데이터 삭제 및 저장장치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H/W 기반 보안장치/방법)를 통해 KAIST의 저장장치 삭제, 한국기계연구원의 저장장치 삭제 기술 등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 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회적 가치의 확대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분야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SV(Social Value) KPI를 가진 SK텔레콤, 교원그룹 등 대기업과 협력해 상호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협력을 유도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한국우편 사업진흥원



전국 각지 연결망 통해
가치 보급하는

‘한국우편 사업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산업진흥 #준정부기관
#보건복지 #상생협력 #지역경제
#SDG3 #SDG12



지난 2019년 12월 개최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현장.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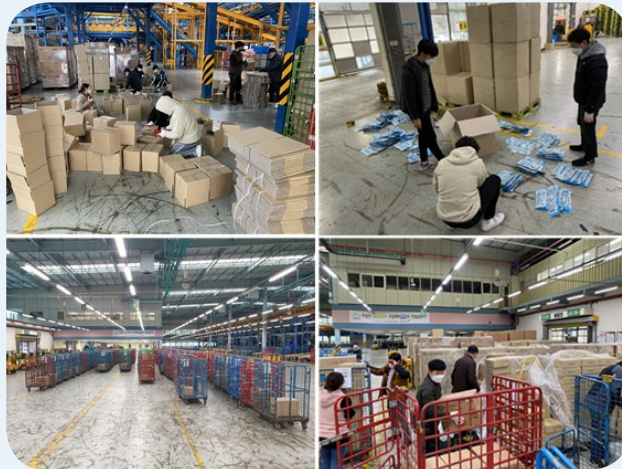
사진 제공 : 한국우편사업진흥원(POSA)

34년 경력의 대한민국 최초 공공쇼핑몰 ‘우체국쇼핑’은 1930년 설립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핵심 플랫폼입니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농수산물 수입 위기감이 높아지던 때,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쇼핑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쇼핑 서비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국 3,000여 우체국을 통해 각지의 특산물을 중간 유통 없이 산지 가격 그대로 국민의 식탁에 신선하게 올리는 데 일조합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수 있던 특징입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지역생산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국민에게는 고품질 안심 먹거리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마스크 수급 과정

- 주요 내용 : 우체국쇼핑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 시행 기간 : 2017년 10월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의 온라인 판매 자생력 확보를 위한 홍보 지원
 - 전용관 운영 및 판촉, 온라인 통합 홍보(175개소 입점, 매출 약 23억 원)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최우수상 수상(2019)

“가심비, 전국 우체국쇼핑몰로 오시면 만납니다”

인터뷰 이호영 · 前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쇼핑실장

(*이호영 실장은 10월 1일자로 우편사업실장으로 발령났습니다.)



Q ‘우체국쇼핑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기관의 역할은 입점 지원부터 상세페이지 제작, 전용 기획전 개설, 할인쿠폰 지원 등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의 우수상품을 다양한 채널로 판매하기 위해 우체국쇼핑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API시스템 연동을 확대하여 우체국쇼핑에 입점하면 자동으로 다양한 판매 채널 판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우체국쇼핑을 내 사회적경제 브랜드관, 반응은 어떤가요.

2020년 현재 기준 우체국쇼핑에 입점해 판매중인 업체 수는 총 175개이며, 약 2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심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죠, 구매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이유입니다. 공급업체도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온라인 거래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체국쇼핑은 타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수수료와 상세페이지 무료 제작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더 높은 만족도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Q 국내 다른 사회적경제 전용 쇼핑몰들과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상품과 낮은 수수료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 좋은 상품이 적절한 가격일 때 고객은 찾기 마련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착한 소비’를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쇼핑은 좋은 상품을 고객 밀착형 국가서비스인 ‘우체국(택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해왔습니다. 세 번째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사업파트너’ 또한 차별점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34년간 ‘공공성’을 목표로 생산자와 고객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해온 맨파워를 들 수 있겠습니다.

Q 전국에서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을 때, 우체국쇼핑실에서 큰 힘을 보탤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2월 중순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시장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늘어난 수요에 생산업체들은 통화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주말, 늦은 밤까지 직접 생산업체를 찾아가 미팅을 통해 100만개 이상 물량을 확보했죠. 2월 28일부터 전국 농어촌 지역 1,406개 우체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7월 10일, 안정적인 수급으로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에 역할했다고 봅니다. 우체국쇼핑을 통해 총 1389만 1천 매, 165억 7900만 원의 공적마스크를 수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휴일 없이 출근해 식약처, 우정사업본부, 마스크 생산업체와 업무 조율하고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올 하반기를 포함해 기관에서 중점 추진하려는 사회적 가치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5대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해당 분야의 목표 달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올해 일자리 창출 500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위하여 기관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우편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안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체국쇼핑의 안전먹거리를 위한 품질관리, 우체국클러스터의 소외계층 안전 강화를 위한 실종아동 찾기, 독거노인 사랑잇기 활동 등이 있습니다. 셋째, 윤리, 공정 경영을 위해 부패 감질 근절, 공정채용 강화합니다. 넷째, 사회 형평성을 위해 여성, 장애인 등 채용을 확대하며, 다섯째,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및 지역산업 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 전략개발원



사회적기업 맞춤형
특허전략 제공하는

‘한국특허 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연구교육 #준정부기관
#사회통합 #상생협력 #일자리
#SDG8 #SDG9



지난 6월 서울 역삼 소재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2019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공유 행사가 열렸다.

사진 제공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기술과 정보의 홍수 시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발상·기술에 특허를 확보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됩니다.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Key)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지킬 수 있도록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이하 개발원)은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무단으로 베끼는 일을 방지하는 등 기술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으로 지식재산이나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KISTA형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 과제 발굴·선정하며, 실적 점검과 우수사례 발굴 등 사회적 가치 확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사회적기업의 특허지원, 전략적으로 보호’



2019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 사업 (예비)창업자(팀)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주요 내용 : 특허 대응·소멸 특허 활용·적정기술 개발 방향 설정 등 전략지원으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 시행 기간 : 2018년 1월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우수한 기술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2018년 지원 기업의 특허 성과 : 국내 특허 출원 7건·상표 출원 2건)
 - 사회적기업의 특허전략을 통한 연구 개발 성공률 제고 및 특허 침해 문제 해소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우수상 수상(2019)

“사회적기업 맞춤형 특허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지원전략체계 마련”

인터뷰 박규태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략기획팀 그룹장



❶ 지난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하신 ‘특허전략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핵심 특허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을 활용할 수 없는 기업이 많습니다. 개발원은 이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맞춤형 특허 분석 및 특허전략을 해당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우수특허 확보와 특허 침해 및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30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했고, 국내 특허 출원 7건, 상표 출원 2건 등의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전용 안내 맵’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특허 분석을 지원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개발하려는 기술의 선행 특허 조사를 통해 특허 침해가 있는 이슈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디자인 등 개선방안을 전달했습니다. 기업이 기술 개발 완료 후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특허 확보 및 권리화 방안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❷ 사회적기업 지원 외에도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특허전략 교육, 취업 정보 제공, 현장 실습, 취업 매칭 등의 취업 연계 특허전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280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 비영리단체 지원 기관 ‘NPO지원센터’와 협업을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무성 특허 교육, 특허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지역 소재 비영리단체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❸ 코로나19에 대한 특허전략개발원의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특허전략’이라는 낯선 분야를 기관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안내 및 기업 수요 발굴 등에 홍보나 각종 설명회가 필수인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대비 비상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대면으로 진행된 각종 설명회, 회의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추가 예산 투입을 통한 동영상 제작 ▲온라인 설명회·평가 체계 구축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를 확대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년도 수준의 사업 운영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❹ 특허전략개발원의 중장기 발전 전망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올해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전략’이라는 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을 활용해 정부 및 민간 R&D 효율화 지원을 통해 국가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지식재산 기반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과 특허전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핵심 목표로 ‘지식재산 기반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과 ‘특허전략 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으로써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❺ 개발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체계 강화 및 내재화를 위해 기관의 비전, 핵심 가치, 전사 전략체계 등을 사회적 가치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 중장기 전략체계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 사업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성과 지표 등을 개발해 연말까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업 및 기관운영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전담 조직 신설, 인력 예산 등 투자 확대,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CHAPTER 04

지역개발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51
- 인천도시공사 55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9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SEODAE MUNGU CITY MANAGEMENT CORPORATION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지역서점 활성화로
잘사는 마을을 만드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상생협력 #지역사회 #지역경제
#SDG8 #SDG12



지난 10월에 진행된 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전문 북큐레이터들이 서점에 방문해 큐레이션 및 촬영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SCMC)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서대문구에서 공공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며,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과 만납니다. 2016년부터는 ‘도서 구매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공단이 관리하는 구립도서관의 약 2억 원(연간)의 자료 구입 예산 중 일반 도서는 지역서점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중입니다.

공단의 이 같은 노력은 지역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형서점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설 곳이 사라졌던 지역서점들이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고, 서대문구에 소재한 6개의 지역서점 대표자들이 서대문서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지역서점에서 책 구매, 지역경제 함께 살린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과 서대문서점협동조합 업무제휴협약식 모습

- 주요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살리기
- 시행 기간 : 2016년 ~
- 사업 범위 : 서울시 서대문구
- 주요 실적 및 성과
 - 서대문구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 지역서점에서 구매
 - 서울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6개 지역서점 연합 사회적경제기업 '서대문서점협동조합' 설립

6개 지역서점이 협동조합 결성... 지역사회 가치 실현에 한몫

인터뷰 김경미 · 서대문구도서관리공단 경영안전팀장



Q 서대문구도서관리공단과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2004년 1월 설립돼 체육시설, 문화·역사시설, 주차시설, 자원화 시설 등 6개 분야 총 17개소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과 민주주의 현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시민들의 여가 문화와 건강을 책임지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관리합니다. 특히 책을 통해 지식·문화 공유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은 이진아기념도서관 그리고 2개의 구립도서관(남가좌새롬, 홍은도담) 운영도 합니다. 저는 공단이 창립하던 2004년도에 입사해 17년째 서대문구도서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신기획팀장, 주민들의 주차관리를 책임지는 주차사업팀장 업무를 수행했고, 지금은 공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산, 경영전략 수립 등 공단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경영안전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공단은 주요한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으로 '도서 구매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펼쳤는데요.

공단이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대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8900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 2억200만 원(예정)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책' 프로그램을 지원해, 2개의 지역서점에서 저자강연회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2019년부터는 서대문 책으로 축제에서 지역서점 도서 판매 부스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에는 지역서점 3곳에서 '찾아가는 북큐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Q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각 자치구별로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며 차별화했습니다. 2018년에는 서대문구 내 6개 지역서점 대표님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서대문서점협동조합)을 결성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Q 협동조합까지 설립됐으니 꽤 성공한 모델로 보입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니 지역서점이 아닌 협동조합과 계약을 진행하게 됐고, 창구가 일원화되고 행정적 업무 처리가 간소화되면서 업무 진행이 빨라졌습니다. 지역서점 대표님들도 행정 처리가 편해지고, 도서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조합원들이 나누는 형태로 운영돼 회계 처리도 투명합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인 서대문서점협동조합에서는 공단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로 책을 구매해 소외계층에게 기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환원하려는 계획이 있어 지역사회에서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서울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도 지정됐습니다.

지역서점은 온라인서점, 대형서점이 등장하기 전부터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 지역에서 운영되며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조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례에는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 시 근거 조항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가 지정된 이후 지역서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지역 내 학교와의 거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Q 향후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공단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사회적 가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가치실현단을 구성했습니다. 혁신을 지향하면서 ▲인권·윤리경영 강화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인천 도시공사



지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선도하는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인권 #지역사회 #지역경제

#SDG8 #SDG11



IMCD(인천도시공사)형 임대주택 돌움집 시범사업 현장 모습이다.

사진 제공 : 인천도시공사(IMCD)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03년 인천광역시로부터 출범했습니다.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사업 등을 통해 300만 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을 비전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고, 도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주택 및 주거문화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등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사회적경제조직과 연대…지역 주거복지 확대 가치 실현’



‘리모델링 돈움집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설립한 공동체주택

- 주요 내용
 - 공사 보유 노후주택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리 임차 및 리모델링/사회주택형임대주택 확대
 - 사회적기업과 공조해 인천 만부마을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제공
- 시행 기간 : 2019년 5월 ~
- 사업 범위 : 인천
- 주요 실적 및 성과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주택 진출 기회 확대
 - 청년·예술인·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 공기업-사회적경제조직 협업 모델 구축(사회적경제조직 매출 확대 및 신규 채용)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 300만 시민 주거 복지 향상 꾀합니다”

인터뷰 박혜성 ·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 저층주거지재생팀장



❶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입사해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민관합동사업 등 개발 업무를 담당했는데,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한 지는 햇수로 3년입니다. 앞서 주택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의 필요와 불편 등 민원사항을 접하다 보니, 도시재생 업무와 유사점이 많아 이해와 적응이 수월했습니다.

❷ 공사에서 주도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 정부의 도시혁신사업입니다. 만부마을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입니다. 30년 넘는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수요가 증가해왔습니다. 10평 미만의 집단이주 지역의 특성상, 고령자나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계셨고 스스로 집을 고치는 것을 어려워하셨습니다. 외부 경관 개선 목적의 집수리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 공사에서 해당 사업을 대행 및 시행했습니다.

❸ 사회적경제주체와 어떻게 협업했나요.

인천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수선 전문 분야의 사회적경제주체를 보조사업자로 공모했습니다.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솔주거복지센터는 집수리 시행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합니다. 청솔주거복지센터의 매출이 늘어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공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❹ 사업의 주요 성과는 어떤가요.

올해까지 3차에 걸친 집수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90건을 신청받았는데, 거주 시설의 65%가 신청한 결과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집수리 후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87점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주민 만족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사는 지난 10월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고,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할 예정입니다.

❺ 사업 기간이 2020년 12월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주민 면담 및 접촉이 제한돼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사가 다소 지연됐지만, 남은 기간 품질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집수리를 완료해서 더 추워지기 전에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수리 관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건의하고, 만부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❻ 그밖의 사회적 가치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경제조직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홍보 플랫폼 ‘가치누리포털(<https://helper.imcd.co.kr>)’을 운영해 인천 사회적경제기업 175개의 온라인 홍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를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정기 개최하고, 물품·용역·공사 등 구매 및 발주를 연결해 지역 상생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시설 임대료 부담을 대폭 감면한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실 ‘코코야’를 운영해 공사의 창업 자문관을 파견했으며, 현재 9개 기업이 입주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부평과 주안 노후주택 2개소를 리모델링해 청년과 한부모가정 공동체 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동읍집 시범사업’을 진행해 사회적기업 ‘아이부기㈜’가 운영을 맡게 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대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육성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회복,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주거복지’ 측면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 청정 환경 지키는
우리가 한다!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지역사회 #환경 #참여
#SDG8 #SDG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체 위생용품과 생필품으로 꾸린 ‘희망꾸러미’ 400세트를
대구 및 제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사진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JPDC)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해 도민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으로, 1995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먹는생물사업’, 제주 특산품인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귤가공사업’, 제주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을 운영하며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JPDC는 설립 취지와 기관 특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함’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공공의 가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연구개발, 인재지원, 사회공헌 등 지역밀착형 정책 및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소셜벤처 키우고, 사회적경제와 함께 지역 환경 문제 해결’



Recycling 삼다수! Upcycling 제주!



“내가Green제주” 소셜벤처 공모전

- 주요 내용 : Recycling 삼다수! Upcycling 제주! 및 “내가Green제주” 소셜벤처 육성
- 시행 기간 : 2018년 4월 ~
- 사업 범위 : 제주
- 주요 실적 및 성과
 - (리사이클링 제주) 도민·관광객 2만 5천 명, 40여 개 단체 협업을 통한 페트병 등 수거(3만 7천 여 개) 및 직·간접 고용 창출(9명)
 - (소셜벤처 육성) 환경문제 해결형 소셜벤처 5개소 발굴 및 총 7,900만원 지원

“플라스틱 문제는 사회적경제와 업사이클!… 환경오염 문제는 소셜벤처 발굴로”

인터뷰

김지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경영혁신팀장

오승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회공헌팀장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사업 'Recycling 삼다수! Upcycling 제주!'를 소개해주세요.

제주에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최고, 재활용률이 최하위입니다. 공사의 주요 생산품인 '제주삼다수'는 먹는 샘물 제품 특성상 플라스틱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물병 무게를 감량하고 라벨을 물에 잘 녹는 접착제로 개선했으며, 라벨 분리표시 도입으로 분리배출을 쉽게 했습니다. 올해까지 원가 28억 원, 재활용 분담금 15억 원을 절감하고, 1790톤의 폐기를 감소를 기대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과정을 통한 지역 문제해결도 주요 목표였습니다. 도민을 주축으로 한 분리수거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병 회수는 제주시와 제주올레, 업사이클링은 제주시재생센터와 협업체제를 갖춰 진행 중입니다. 중증장애인 시설 희망나래일터가 분리수거함과 홍보물을 만들고, 제주희망협동조합이 도내 5천 가구에 수거함을 배포·수거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는데, 분리수거함에 도민 1만 3천 명이 참여하고, 자동수거 보상제에는 설치 3달 만에 6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업사이클 페트병 트리 제작과 점등 행사에는 작가 50명과 도민 130명, 관광객 3천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동수거기를 통해 설치 3개월간 빈병 37.52kg, 캔 14.08kg이 회수되는 환경개선 효과도 이뤘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청정제주 사업에 참여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체제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실효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Green 제주 소셜벤처 육성'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까지 지원해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데, 해를 거듭하며 진화 중입니다. 2019년에는 창업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팀별 숙련과정을 추가하고, 지원 내용도 확충했습니다. 두 번의 공모전에서 창업·활동 아이디어가 총 71건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국민투표 167명, 도민·국민참여단 51명이 참여해 실효성 높은 11개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제주의 혁신성장을 위해 공사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더큰내일센터 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내 혁신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인재와 기업을 양성하고, 사회적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JPDC가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해 추진한 사회적 가치 사업이 궁금합니다.

사회적 가치 사업의 기본 방향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엔터테인먼트모임 등과 협력해 제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23개에서 152명이 참여해 140명이 수료했으며, 제주 출신 문화 예술인의 재능기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졌을 때, 지역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식품·위생용품으로 꾸린 5천만 원 상당의 '희망꾸러미' 400세트를 취약계층에 전달했고, 무료급식 중단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총 2천 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위축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 및 홍보를 위해 온라인 제품 전시회(28개 업체, 138명 참가)와 구매 상담회(24개 업체, 40회 상담)를 진행했고, 도내 사회적기업과 협업을 2,500만 원 상당의 제주삼다수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했고, 특별 재난구호금 200억 원을 제주도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JPDC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향과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공사는 제주도의 모범적 기업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의 기반을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CHAPTER 05

농림수산환경

- 한국농어촌공사 65
- 한국임업진흥원 69



한국 농어촌공사



사회적 농업으로
지역문제 해결하고, 이웃 품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환경 #준정부기관
#상생협력 #지역사회 #지역경제
#SDG2 #SDG8

2019 사회적 농업 국제 심포지엄

2019 Social Farming International Symposium

Social Farming and Welfare Reconciliation

Seoul, Korea 10 Dec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주최 한국농어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9 사회적 농업 국제 심포지엄
2019 Social Farming International Symposium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사회적 농업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사회적 농업과 복지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KRC)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영농 규모화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활동의 하나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약자가 농업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키워 자립하는 개념입니다. 소외됐던 이웃을 농촌에서 농업으로 품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사회적 농장을 2023년까지 100개소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정착해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돌봄·교육·고용의 해결책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농어촌공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구축한 '지역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 주요 내용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농장 확대
- 시행 기간 : 2019년 1월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사회적 농업 제도 육성 마련(온라인플랫폼 지원센터)
 - 사회적 농장 18개소(2019년) → 100개(2023년) 목표

2023년까지 사회적 농장 100개소…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정착”

인터뷰 박성찬 ·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가치추진단장



❶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95년도에 입사해 올해로 만 25년이 됐습니다. 올해 승진과 함께 사회적가치추진단장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았습니다. 25년의 근무경력에서 감사실과 경영관리실 등 본사 경력 8년을 제외하면 17년간을 농어민들과 함께하며 지사 현장업무를 했습니다. 사회적가치추진단의 업무는 공사가 농어촌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 사회 그리고 농어민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농어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하는 농촌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국농어촌공사만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찾겠습니다.

❷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농장을 통해 농촌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할 다양한 방법을 지원합니다. 세무·법률 등 전문서비스를 상시로 지원하며, 판로 확대 및 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농장의 경영 안정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농업·농촌의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사회적 농업을 홍보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교육·고용 관련 부처·기관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농업과의 연계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❸ 사업 성과는 어떤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 돌봄·교육·고용 효과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농장 30개소를 선정했고, 공사에서는 판로 지원 및 경영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들은 권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변 사회적 농장과 함께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홍보를 하는 등 사회적 농업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사회적 농업’이 정착돼 농업을 통해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돌봄·교육·고용의 해결책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사회적 농장인 ‘청송해뜨는농장’, ‘청년마을’ 등에서는 농촌에 기반이 없는 귀농·귀촌 청년을 정착시키고, 농촌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행복농장’이나 ‘선거텔빙푸드’ 등은 장애인, 범죄피해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❹ 농어촌공사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코로나19로 급감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 SOS’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인플루언서 팸투어(5회, 20명)와 농촌관광 체험단(3천 명)을 운영하고, 신용카드 3사와 제휴해 농촌관광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1,700 경영체 대상 18억 원 지원) 중입니다. 또한, 비대면 체험키트를 개발해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배포(1개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해 마을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총 11억 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농촌 융·복합 산업경영체 온라인 관리 분야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사회적경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청년 농부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장터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위해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금융장터를 4회 개최해 막혀있던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을 위해 힘썼습니다.

❺ 사회적가치추진단의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코로나19로 공사가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마을기업 등은 엄청난 매출 감소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기관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영세한 농어촌, 농어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한국 임업진흥원



‘숲’으로 일자리 창출,
산촌 경제 활성화하는

‘한국 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수산환경 #준정부기관
#일자리 #지역경제 #환경
#SDG2 #SDG8



전국에서 활동하는 그루매니저들은 숲에서 희망을 찾고있다.

사진 제공 : 한국임업진흥원(Kofpi)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부자’입니다. 산림 분야의 공적 책임을 맡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형)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비롯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사회적 가치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출범,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역 고유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낙후된 산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비롯해 △폐기처분 되던 목재 자원을 활용해 국내 목재 자원 수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경쟁력 강화) △유망기술 이전 및 우수성과 실용화 지원 확대로 중소 목재기업·임업인 성공 견인(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으로 산림의 환경·경제적 가치 제고(산림보호·육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조성’



2019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경제체 성과공유 전국대회

- 주요 내용 :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산림 비즈니스 기획가와 사회적기업 육성
- 시행 기간 : 2014년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지역공동체 ‘그루경제체’발굴(196개 경제체, 지역주민 1,693명 참여) *20년 09월 기준
 -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및 고용 확대(129개 기업, 707명의 고용 효과) * 20년 06월 기준
 -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소득 증대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우수상 수상(2019)

“숲 자원 활용해 주민 공동체 성장 및 지속가능성 유지할 것”

인터뷰 이인세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장



❶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숲 관련 시민단체에서 20여 년간 활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졌고, NPO 지원센터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출범 당시 공모를 통해 산림일자리발전소에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❷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기획하고 지원하는 ‘그루매니저’를 양성합니다. 그루매니저는 지역공동체인 ‘그루경영체’를 육성합니다.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건강한 예비 주민공동체를 발굴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❸ ‘그루매니저’와 ‘그루경영체’란 명칭이 독특한데요.

연예인들에게만 있는 매니저가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매니저가 생기니 꽤 신나는 일이겠죠? 그루매니저는 지역의 산림자원 조사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산림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는 그루경영체를 발굴, 육성해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리더입니다. 출범 첫해인 2018년에 5명의 그루매니저가 있었는데, 2020년 현재 전국 40명의 그루매니저가 지역에서 산림 일자리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에 196개의 그루경영체에서 2,000여 명의 구성원이 참여해 숲에서 새 희망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루경영체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산림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5인 이상의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루경영체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그루매니저가 그루경영체의 창업 활동을 위해 최소 3년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자립과 성장을 돕습니다.

❹ 산촌은 도시 대비 고령화가 심해 돌봄과 일자리 확대 필요성도 클 거 같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산촌 소멸 현상은 사회 구조적 측면이나 국토 기능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촌의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해 산촌 기능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산촌을 지탱하고 있는 산촌 주민공동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집중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촌 주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공동체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❺ 코로나19 사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산림서비스 체험이나 교육, 복지 관련 그루경영체의 매출 활동이 매우 위축됐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 그루경영체 성장 촉진 지원사업 분야를 강화해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진행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의 시대의 부합하는 ‘숲 자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산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❻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나요.

국가적으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공공·민간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죠. 이제는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의 재생, 지역순환 경제를 넓혀갈 수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창업일자리실을 신설해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출범해 지역에 특화된 산림비즈니스 모델 및 공동체의 창업과 성장 지원에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CHAPTER 06

기타 (보건의료·정책금융·외교법무·문화예술)

• 국립암센터	75
• 신용보증기금	79
• 한국국제협력단	8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7



국립암센터



암 환자,

‘국립암센터’

통해 사회 기여 주체로
우뚝 선다

#국립암센터 #보건의료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 #사회통합 #일자리
#SDG3 #SDG8



국립암센터는 ‘정서돌봄 메이트’를 양성해 지역사회에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암생존자에게 정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제공 : 국립암센터(NCC)

10년째 매년 늘어나는 신규 암등록환자. 국립암센터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암’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전문 연구와 진료를 통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됐습니다.

센터에는 환자들을 치료·진료하는 부속병원 외에도 암연구소,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등이 있어 암을 관리하는 국가적인 사업과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속병원 안에는 2018년부터 공공의료보건의사업실이 마련돼 병원 밖 암 환자들의 사회 복귀, 삶의 질 향상을 도우며 공공의료 분야의 사회적 가치 구현 최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암환자 사회 복귀 지원 사업 리본(Re:Born)’



리본센터 개소식



암극복 사회적기업 ‘다시시작’ 창립식

- 주요 내용 : 백마역 내 ‘리본센터’ 개소…사회적기업 창업 지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등
- 시행 기간 : 2018년 8월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고양시와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암환자 일자리 창출 협약(‘18.8.)
 - 암환자 사회복귀지원센터 리본(Re:Born) 개소(‘19.10.)
 - 암환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공공기관 협력 모델 구축
 - 암환자 사회 복귀 관련 창업·커뮤니티 복합 공간/사회적협동조합 설립(‘19.10.)

“사회에 다시 복귀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열 · 국립암센터 공공의료보건의사업실장



Q 공공의료보건의사업실을 소개해주세요.

암 진단을 받아본 국민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생존율은 70%를 넘습니다. 공공의료보건의사업실은 병원 밖 암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위해 2018년 신설했죠. 지역사회 암 환자들의 치료 후 사회 복귀를 돕고, 암 환자 가족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기획·추진합니다. 저는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의사로, 2007년부터 14년째 근무 중입니다. 공공의료보건의사업실 설립 때부터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Q ‘암 환자 사회 복귀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2018년 8월 시작했습니다. 생존율은 높는데, 암 치료 후 새로운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40% 수준입니다. 치료 후 사회활동을 안 하는 환자들은 삶의 질도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고립감 등을 더 느낀다고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편견 탓에 암 환자들의 사회 복귀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사업 이름을 ‘리본(Re:Born)’이라 지었습니다.

Q 사업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이 많이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시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아카데미, 컨설팅 등을 활용하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암 환자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리빙랩 기반 시민해결단을 운영했습니다. 국립암센터와 고양시,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해 추진하는 ‘고양해피케어’사업이 작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암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가정에 복귀하기까지 암 환자의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하는 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활력 및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더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위드메이트 ▲해피에이징 ▲그린피플 ▲올리브앤제펫토 ▲대창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합니다.

Q ‘리본센터’는 잘 운영하고 있나요.

고양시,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경의선 백마역 1층 공간에 암 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암 환자 사회적경제조직 물품 전시 및 제작, 암 환자 취·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합니다. 올 9월에는 센터 내 ‘리본 메이커 스페이스’를 열었습니다. 암을 주제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공유할 수 있는 창작활동 지원 및 창업을 연계합니다. 작업실, 공작실, 교육공간, 회의공간, 아이디어룸, 창고 등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고, 3D프린터, 3D스캐너, CNC장비, VR카메라, 계측장비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내년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이 실제 탄생할 거라 기대해봅니다.

Q 국립암센터의 도움으로 암 환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창업했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 10월 유방암 환우인 안연원 이사장을 비롯해 5명의 암 환자들이 출자금을 납부해 사회적협동조합 ‘다시시작’을 설립했습니다. 고양시도 공동 지원했습니다. 치료 탓에 피부와 모발이 거칠어지는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천연재료를 사용해 수제 비누를 제작합니다. 암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제품군을 기획·개발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Q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국립암센터의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암 환자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게 우리 기관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양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환자 사회적경제 연계 사회서비스 모델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암을 주제로 한 돌봄·케어 서비스 및 시제품 개발, 암 생존자 사회적경제기업 2, 3호 설립 지원, 암 환자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창업 모델 및 일자리 연구, 리본센터 복합 기능 내실화 및 고도화 등에 힘을 계획합니다.



신용 보증기금



사회적금융 허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 #준정부기관

#상생협력 #일자리 #지역경제

#SDG8 #SDG9

T LOUNGE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사진 제공 : 신용보증기금(KODIT)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사회적금융.’ 국내 정책금융기관 중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1976년 설립된 중소기업전문 종합지원기관으로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자금 공급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열어 평가 노하우가 충분치 못한 기관에 표준 평가체계를 제공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심의·의결기구로 2018년부터 ‘사회적가치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지역자산화 사업으로 성사된 ‘안심마을-신용보증기금 햇빛발전소’와 체육관 개방으로 열린 명량운동회

- 주요 내용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시행 기간 : 2019년 4월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유휴공간 활용 지역자산화 사업 시범 지원(완산구·서천군·거제시 등 3곳)
 -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요에 부응
 - 지역경제 활성화·젠트리피케이션 방지·자산 공동 관리로 공동체 역량 강화 등 기대
 - 정부·정책금융·민간금융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최대 3억 원 보증 제공

정부-공공-금융 협력해 이루는 지역자산화 사업

인터뷰 이송필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가치추진센터장



❶ 사회적가치추진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가치추진센터는 사회적 가치 추진과 관련된 과제를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올해로 신용보증기금에 만 22년째 근무하는 중입니다.

❷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나요.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설립목적 자체가 사회적 가치와 아주 밀접합니다. 고객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게 중심입니다. 고용 창출 기업을 위한 '고용창출 우대보증'은 사회적 가치 요소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돼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은 '지역경제 공헌'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보증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직접 연관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지원보증,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보증, 청정환경보증, 재난피해기업보증, 자영업자보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많은 지원제도가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겁니다.

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해 시작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주민공동체가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자산화, 공동체자산화, 사회적부동산 등으로도 불립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간을 지역 사회에 개방해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전국 공모를 통해 지역자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을 모집했습니다. 61개 신청사업 중 전문가 위원회의 약 2개월 심사를 거쳐 20개 사업을 지난 6월에 선정했고, 현재까지 12개 기업에 57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본점 1층 유희공간에 '휴&Books'라는 고급 스터디카페 분위기의 개방형 도서관을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했고, 체육관 시설도 개방해 지역 아동들을 위한 명랑운동을 개최하고 지역주민 스포츠 동아리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안심에너지협동조합과 신용보증기금 직원 숙소인 '청림재' 옥상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안심마을-신용보증기금 햇빛발전소' 설치를 시작해 이번 달 초에 준공했습니다. 공공기관 유희공간을 지역사회 수익 창출 및 공익사업 용도로 제공한 최초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 자산화 사업의 선도 모델로 2020년 기획재정부 주관 21대 우선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연간 약 2,100만 원의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돼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❹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2년간 개발해 구축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공동체 실현 및 상생을 통한 자생적 선순환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 대비 영업이익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인 금융 평가 기준을 적용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금융은 재무뿐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원 의사결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웹 기반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했으며, 사회적금융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❺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연체 등이 발생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던 이유도 있고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와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없는 만기연장, 보증 추가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긴급 운전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시락 배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방역수칙이 허락하는 한에서 취약계층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도울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전략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로 '사회적가치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외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전략체계와 이를 전담할 추진조직을 갖추고 있어 '지속가능성' 높은 가치 구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을 넘어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법무 #준정부기관
#인권 #상생협력 #일자리
#SDG1 #SDG8



코이카 경영진은 지난 9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급여와 성과금 반납분을 모아 기부했다.

사진 제공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가 아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내와 해외의 가치사슬을 잇는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는 '제1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에서 해외진출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코이카는 기업이 양성부터 창업지원, 사업화지원, 연수까지 글로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통합 육성합니다.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개발도상국에 사회적경제조직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국내외 사회적 가치 창출사업 및 창업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개도국 빈곤 해결·인권 보호까지… 사회적 가치의 무대는 글로벌’



에누마 킷스쿨을 사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아동

- 주요 내용 : 국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통합적 육성
- 시행 기간 : 2015년 1월 ~
- 사업 범위 : 전 세계
- 주요 실적 및 성과
 -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감염병 대처 및 글로벌 기후변화위기 대응과 개도국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을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하고 국제 영향(글로벌 임팩트) 확인
 - 혁신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을 거친 사업(에누마, 킷스쿨)이 인정받아 세계 최대 비영리 벤처 재단(XPRIZE)이 개최한 대회(Global Learning XPRIZE)에서 공동 대상 선정, 500만 달러 수상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우수상 수상(2019)

“국제개발 협력 파트너 육성 및 지원… 한국판 뉴딜 이끄는 사회가치 경영할 터”

인터뷰 홍희수 · 한국국제협력단 사회가치경영실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04년에 코이카에 입사해 16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6년은 라오스와 필리핀 사무소에서 각 3년씩 근무했습니다. 10년은 본부에 있었는데 예산, 경영평가, 조달, 홍보 등 기획·지원부서에서 약 7년, 사업부서에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업무는 올해 7월 신설된 사회가치경영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6년간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코이카의 거의 모든 사업을 접해보고, 현장 파트너의 목소리를 접한 게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한국국제협력단의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 기관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회적 가치 13대 주제로 꼽은 일자리 창출, 건강,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민주적 참여,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의 주제와 유사한 목표를 해외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 솔루션 개발사업인 ‘창의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에 참여한 파트너 에누마와 함께 개도국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난해 역량 강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Global Learning XPRIZE)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이카의 모든 일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점입니다. 코이카의 본연의 업무에서 기인합니다. 국제질병 퇴치기금은 진단·치료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국제 사회와 공조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보탬이 됩니다.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은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줍니다. 국경과 무관하게 보건, 환경 위기로부터 협력국 주민과 우리 국민 보호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Q 2015년부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통합적 육성’ 사업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국내와 협력국 현지에서 활동할 코이카의 파트너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입니다. 빈곤 인구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교육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해 60만~70만 명이 사망하는 말라리아 감염의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은 코이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코이카와 함께 국제개발 협력의 과제를 해결할 좋은 파트너입니다. 2020년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안으로 한 사업 규모는 25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2022년까지 30억 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이 제안하는 포용적 비즈니스를 지원해 2022년에는 협력국 현지의 사회적경제 영역 일자리 900개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Q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자가 격리가 어려운 지역주민과 긴급귀국한 교민 대상 코이카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8월 시점에 461명의 우리 국민과 교민이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막는데 기여했습니다.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의료분야 봉사단 중 지원자를 대구·경북지역에 파견했고, 재외공관과 협력해 31개 개도국에 코이카 글로벌협력 의사와 봉사단원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극복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국내외 사회적경제조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MOU를 체결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 개도국 현지 사회적경제 50개 조직의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한국국제협력단과 사회가치경영실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글로벌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 확산을 이끄는 사회적 가치 경영을 할 계획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관으로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 충실하면서 대표기관으로서 국내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지원 및 견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이행을 통해 국내외 고용충격 및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고, 산업육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내외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적 발전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전 국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기타공공기관
#인권 #상생협력 #지역경제
#SDG4 #SDG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특별한 예술여행, '힘나는예술여행'을 개최했다.

- 참여작가 : 이이남, D'strict / 후원협력 : (주)넥센타이어

사진 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예술위는 특히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차별 없는 문화권’ 증진에 주안점을 둡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에 빠졌지만, 예술위는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고, 문화예술계 기업·단체에는 예술 활동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문화권” 보장하는 신나는예술여행,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동참이 늘어납니다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사업 현장 모습.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 농촌, 시장을 대상으로 오래된 문화와 주민 이야기의 가치를 일깨우는 프로그램 진행

- 주요 내용 : 차별 없는 문화기본권 제공
- 시행 기간 : 2004년 ~
- 사업 범위 : 전국
- 주요 실적 및 성과
 - 다양성을 고려한 예술사업 지원 : 신나는예술여행사업·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인생나눔교실사업·문화다양성증진사업 등
 - 찾아가는 예술사업 ‘신나는예술여행’ 전국 5,700여 회 프로그램 진행(2020년 기준)
 - 다양한 사회적기업 참여를 위해 조직유형 등 선발 기준 다양화
(신나는예술여행사업 참여 사회적기업 : '17년 26개 → '18년 34개 → '19년 47개 → '20년 72개)

“문화예술을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 활동 모델 제시할 것”

인터뷰 이한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장



❶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입사한 지 올해로 약 25년 차입니다. 대표적인 예술향유 지원사업인 신나는예술여행사업,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인생나눔교실사업, 그리고 문화다양성증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정책부서에서 예술위 전사적인 사회적 가치 경영 업무를 맡았었는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❷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화기본권을 높이는 정책들은 ‘누구나 연간 몇 회 이상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기준을 정해도 실제 성과가 나오려면, 나이나 취향에 따라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 선택 등 세심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수요자 중심 원칙이 중요하게 반영돼야 하는 이유죠. 문화권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수요자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❸ ‘신나는예술여행’사업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찾아가는 예술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군부대, 교정시설, 초중고학교 등을 찾아가합니다. 회계연도에 맞춰 1년 단위로 예술단체를 선발하고 있고, 하나의 예술단체가 평균 10회 정도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각지에서 약 5,700회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❹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가 늘고 있다면서요.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확대를 권장하기 위해 참여 단계 공모 단계부터 조직 유형을 별도로 설치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육, 성과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17년 26개→'18년 34개→'19년 47개→'20년 72개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3년(2015~2018) 사이에 약 37% 증가했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포함하면 2018년도 기준, 1,350개로 집계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신나는예술여행은 예술을 향유하면서 얻는 정서적 만족 외에, 건강증진, 지역사회 형성, 지역경제 기여 등 다양한 부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런 성과 달성에 필요한 인식과 능력을 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당연한 요건이고요. 문화예술단체들의 역량 개발과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❺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텐데요.

공연사업이 직격탄을 맞았죠. 감염 위험을 예방하면서도 예정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사업지원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특별한 예술여행(힘나는예술여행, 참여작가 : 이이남·District/후원협력 넥센타이어)을 열기도 했습니다.

❻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예술 지원 전문기관이 가진 특징점을 살려 문화예술을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 확대 활동 모델을 제시하려 합니다. 특히, 지역협력부는 문화예술에 목말라 하는 분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달자’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의 본원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부가적인 사회적 가치도 거둘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개선하고, 예술단체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주요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기관명	코로나19 대응 주요 사례
국립암센터	• 드라이브스루 코로나 검사 방식을 적용한 '안심카 선별진료소' 동참 • 코로나19 말기환자 및 가족 직접 방문 돌보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시행 • 코로나 상황, 암환자 진료 의료인 권고사항 발간(대한암학회 공동)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 지역서점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도서 정가 구매 • 주민 안전 도모(코로나 안전대책 및 대책반 가동) • 사업소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 예산 지원 등
신용 보증기금	• 기존 대출 상환 없는 만기연장·보증 추가지원 및 긴급자금 지원 • 도시락 배달·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지원 예정 • 노사공동 5천만 원 기부·온누리상품권 5억 원 약정 구매 등
연구 개발특구 진흥재단	• 기업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투자·마케팅 지원 행사 개최 (데모데이, 온라인 기술 매칭·이전 행사 등) • 학습에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및 헌혈 활동 지원 • 지역산업 위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국기업데이터 공조) - 출처 : 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뉴시스
인천 도시공사	• '가치누리포털(https://helper.imcd.co.kr)'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175개사 온라인 홍보 지원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2년 동결 • 급여공제분, 독거 어르신에 겨울나기 키트 선물 - 출처 : 조선일보/인천일보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 사회적경제조직 융자금상환 유예(2개월) 및 긴급경영지원금 전달 • 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74개소, 5,300만원) 및 혁신기업 지원금(2억 5천만원) 선지급 • 농어촌진흥기금 50억 원 출연 등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 지역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취약계층에 식료·위생용품 '희망꾸러미' 전달 • 사회적기업과 협업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제주삼다수 굿즈 제작 • 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및 재난구호금 200억 원 기부 등
한국 가스공사	• 대구 내 사회적경제 플랫폼·공급망 활용 방역물품 조달 및 대구광역시 기부 • 해외 파트너사에 한국 마스크 공급(사회적기업 협력) • 대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 사육 방역 및 물품조달 등
한국국제 협력단	• 시설 개방(자가 격리 어려운 지역주민·긴급 귀국 교민 대상) 및 치료소 운영 • 의료분야 봉사단 중 지원자 대구·경북지역 파견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MOU를 통한 개도국 사회적경제 50개 조직 지원 등

기관명	코로나19 대응 주요 사례
한국 농어촌공사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SOS 사업 시행(인플루언서 팸투어/5회·20명)·농촌관광 체험단(3천 명)·신용카드 3사 제휴(농촌관광 청구할인 이벤트) • 농촌체험 위축 극복 지원 : 비대면 체험키트 개발·유치원·어린이집에 배포 등 • 지역 사회적경제 온라인 장터 개최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적극 안내 및 행사 개최 기관 긴밀 협조 • 예술단체들의 사업 유지 및 온라인 비대면 전환 동시 지원 • 대구 의료진 응원 특별 전시회 개최
한국수자원 공사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사업(점프업)에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신규 포함 • 증강현실을 이용한 비대면 물교육 프로그램 및 주민 해설사 양성 등 신규 사업 개발
한국우편 사업진흥원	• 코로나19 초기 공적마스크 100만개 확보 및 우체국쇼핑, 전국 1,406개 우체국을 통해 공적마스크 보급 • 우체국쇼핑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175개소 입점, 매출 약 23억 원)
한국임업 진흥원	• 우수그루경영체 매출 위축 극복을 위한 성장촉진 지원사업 강화 • 비대면(온라인) 기획전 '자연으로 집콕 탈출' 개최 • '임업 인사이트 온라인 포럼'개최 - 출처 : 농수축산신문/연합뉴스
한국중부발전	• 중국 교포 격리 지역 및 지역사회에 총 2억 2천만 원 기부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9개 업체 24억 원)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5억 원 출연 등
한국 철도공사	• 비대면 사업 온라인 장터를 통한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 경부선 천안아산역 '착한자판기' 설치(지역특산품·소상공인 상품 전용 판매)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기금 200만 원 지원 - 출처 : 뉴시스/전북도민일보
한국토지 주택공사	• 비상대책기구 구성 종합대응 방안 가동, 상반기 사업비 2천억 원 추가 집행/공사·용역선금 확대(6237억 원) • 건설·주택관리업체 방역·임대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1억 2천만 원) 지원 • 임대주택 확진자 발생 세대 및 홀몸어르신 대상 생필품 제공
한국특허 전략개발원	• 코로나19 대비 비상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설명회 온라인 전환 • 동영상 제작 지원 및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 등 • 혈액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헌혈운동 동참 - 출처 : 중도일보

※ 기관명 가나다순, 대표 사례 2~3선 중심 소개(인터뷰 및 언론 보도자료를 참고해 정리)

부록 2

찾아보기

I. 기관명

II. 분야

※ 기관명 가나다순

국립암센터	75	SOC	9, 13, 17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51	에너지	23, 27, 31
신용보증기금	79	산업진흥·연구교육	37, 41, 4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7	지역개발	51, 55, 59
인천도시공사	55	농림수산업환경	65, 6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9	보건의료	7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9	정책금융	79
한국가스공사	23	외교법무	83
한국국제협력단	83	문화예술	87
한국농어촌공사	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7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41		
한국임업진흥원	69		
한국중부발전	31		
한국철도공사	13		
한국토지주택공사	1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5		

III. 조직 유형

공기업	9, 13, 17, 23, 27, 31
준정부기관	37, 41, 45, 65, 69, 79, 83
기타공공기관	75, 87
지방공기업	51, 55, 59

IV. 사회적 가치

인권	27, 55, 83, 87
보건복지	23, 41, 75
사회통합	13, 45, 75
상생협력	9, 13, 17, 23, 27, 31, 37, 41, 45, 51, 65, 79, 83, 87
일자리	13, 17, 31, 37, 45, 69, 75, 79, 83
지역사회	9, 51, 55, 59, 65
지역경제	9, 17, 23, 31, 41, 51, 55, 65, 69, 79, 87
환경	27, 59, 69
참여	37, 59

V.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 1. 빈곤종식	83
SDG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농업	65, 69
SDG 3. 건강 및 웰빙	41, 75
SDG 4. 양질의 교육	31, 87
SDG 6. 물과 위생	9, 27
SDG 7. 에너지	27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3, 17, 31, 45, 51, 55, 59, 65, 69, 75, 79, 83
SDG 9. 혁신과 인프라	23, 37, 45, 79
SDG 10. 불평등 완화	13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17, 55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9, 23, 37, 41, 51, 59, 87

Buy Social

바이소셜 (Buy Social) 캠페인

당신이 구매한 가치는 얼마인가요?

당신이 구매한 사회적경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비가 모두를 위한 가치로, 바이소셜(Buy Social)하세요!

BUY SOCIAL

SOCIAL VALUE

Buy for People

사람을
위합니다



∞

Buy for Life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

Buy for Local

지역 상생을
추구합니다



∞

Buy for Earth

환경을
생각합니다



∞

TOTAL :

∞ (무한대)

모두를 위한 소비

나의 선택, 바이소셜



BLOG blog.naver.com/se365company | FACEBOOK www.facebook.com/social365 | YOUTUB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STORE www.sepp.or.kr
INSTAGRAM www.instagram.com/kosea_365 | TWITTER www.twitter.com/social_365 | KAKAO PLUS pf.kakao.com/_xkbr9x1